

총리 청문회 끝까지 자료 공방… 민주 “정책 질의 언제하나”

국힘, 대출 상환 내역·칭화대 성적표 제출에 답변 태도 사과 요구도
민주 “황교안·한덕수도 미제출…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 훼손 안돼”

국회에서 25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을 파고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은 가로막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날 요청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부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상황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재산 형성 의혹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현장 답변을 바탕으로 처가의 생활비 지원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비롯해 불법정치자금 추징금 납부 관련 2024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사인 간 채무 변제를 위한 2025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 논란과 관련 해선 출입국 기록과 대학 성적표 등을 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며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거나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보자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어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더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것 안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정홍원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재산 현황 및 미제출 자료 내역을 나열한 뒤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인가. 이런 기준이 어디 있나”라고 항의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보좌직원들을 겨냥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고 질타했다.

또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우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하고,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회의원들이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군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한정은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는 존중해야겠지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 등은 밤 11시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준비단과 보좌직원들을 옹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과 후원자 강신성씨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보석 석방’ 송영길, 5·18 민주묘지 참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5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80년 5·18당시 사망한 광주대동고 동창인 전영진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추경 심사 착수…민주 “상임위원장 내일 일괄 선출”

추경안 다음달 4일까지 처리

국회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이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사태’ 발언 무릎 꿇고 사죄하라”

광주 국회의원들…국힘 배준영, 인사청문회에서 5·18 폄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 의원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망언은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가고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극우 파쇼집단의 위험한 역사 왜곡을 어김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배준영의원이 자신의 망언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정정하겠다”면서도 “광주민중화운동, 됐어요?”라며 조롱하는 말투와 태도를

보인 것을 정정이나 사과로 볼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인 호남동행 국회의원 소속인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결과 속이 다르게 호남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설명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망언과 폄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소속 국회의원인 김진태·이종범·김순례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망언을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1주일 또 연기

“사안 중대성 고려…조직개편 TF, 檢 수사·기소 분리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1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인 만큼,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길 희망한다”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가 수사·기소 분리 정책에 비협조적인 검찰에 대한 질책인가”, “검찰이 다음 보고에서도 입장을 유지하면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 중이라면서 “(검찰 기소권 통제 방안 등) 당연히 조직개편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30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검찰 업무보고는 당초 이날 오전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운영위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